

현대중국어 인지동사 ‘知道’와 ‘了’의 결합현상 연구*

— ‘知道+了+목적어’를 중심으로

許雪英·崔圭鉢**

<目 录>

1. 서 론
2. ‘知道+了+목적어’ 구문의 통사적 특징
3. ‘知道’의 상황유형(situation type)
4. ‘知道’의 상적 전환(aspectual shift)
5. 완료상 ‘了’의 기능분화
6. ‘知道’의 의미기능 확장
7. 결 론

1. 서 론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중국어에서 완료상표지 ‘了’은 경계 지어진 상황과 결합하여 하나의 제한된 사건을 나타낸다. 박민아(2015)에 따르면, ‘了’이 출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사구가 종결점을 지니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a. *他吃了饭。
b. 他吃了两晚饭。

* 이 논문은 2017년도 BK21 고려대학교 중·일 언어·문화교육연구원 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문과 박사과정(주 저자), 고려대학교 중문과 교수(교신 저자).

그는 밥을 두 그릇 먹었다.

예문 (1a)가 비문이 되는 원인은 활동 동사 '吃'에 종결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1b)와 같이 목적어를 수량적으로 제한을 주게 되면 성립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수량 성분의 출현으로 인해, 동사구 '吃了两碗饭'은 종결점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동사 '吃'의 경우와 달리, 상태동사에 속하는 '知道'는 목적어를 제한적인 성분으로 교체하여도 '了_i'과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 a. *我知道了事。
b. *我知道了那件事。

예문 (2)를 보았을 때, '知道'가 포함된 동사구 '知道了那件事'는 한적정인 목적어에 의해 종결점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了_i'과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필자가 CCL 코퍼스를 조사한 결과, '知道+了+목적어' 구문은 2600여개가 존재하였으며¹⁾,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a. 我从她的同学那里知道了全过程。
나는 그녀의 학교 동창으로부터 (사건의) 전 과정을 알게 되었다.
b. 由此, 人们知道了汪曾祺。
이로써 사람들이 汪曾祺를 알게 되었다.

CCL 코퍼스

'了'의 출현 위치로 보았을 때, 예문 (3)의 두 문장에 출현한 '了'는 완료상 표시 '了_i'이다. 그렇다면 왜 예문 (2b)는 성립하기 어려운 반면, 예문 (3)을

1) CCL 현대한어 코퍼스 검색창에 '知道了'를 명령어로 검색한 결과, '知道'와 '了_i'이 결합한 경우는 크게 복문과 단문(문두에 부사절이 출현하는 경우도 포함) 두 가지 문형이 있었고, '知道'가 문말의 '了'와 결합하는 문장도 있었다. 본고에서는 '知道'와 '了_i'이 단문에서 결합하는 문장을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2600여 개의 '知道+了+목적어' 구문은 단문의 경우만 포함시킨 것이다.

비슷한 코퍼스의 수많은 ‘知道+了+목적어’ 구문은 성립이 되는 것일까? 또 이 구문이 성립이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되며, 문장의 각 성분은 각각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상적 전환(aspectual shift)과 일반화(generalization) 이론으로 ‘知道+了+목적어’ 구문이 성립이 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2. ‘知道+了+목적어’ 구문의 통사적 특징

CCL 코퍼스 조사 결과에 의하면, ‘知道+了+목적어’ 문장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知道’의 목적어가 명사성 성분인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a. 也是从他的口中, 我第一次知道了电影学院这个词。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电影学院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 b. 过了几天, 徽因的一些朋友不知怎么也知道了这件事。
 며칠 지난 후, 徽因의 친구들도 어찌된 것인지 이 일을 알게 되었다.
- c. 随后的调查表明, 全国94%的消费者知道了有关情况。
 이어진 조사에 의하면, 전국 94% 소비자들이 관련 사항을 알게 되었다.

CCL 코퍼스

예문(3)에서 각 문장의 목적어는 각각 ‘电影学院这个词’, ‘这件事’, ‘有关情况’ 등이며, 모두 한정적인 명사성 성분이다. 또한, ‘知道’ 앞에는 모두 부사어가 출현하였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예문(3)과 같은 ‘知道+了+목적어’ 구문이 성립이 되려면 목적어와 부사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다. 만약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문장은 비문이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부사어를 생략한 경우:

- (4) a. *()我()知道了电影学院这个词.
- b. *(), 徽因的一些朋友()知道了这件事.
- c. ?(), 全国94%的消费者知道了有关情况.

한정적인 명사를 비 한정적 성분으로 바꾼 경우:

- (5) a. *也是从他的口中, 我第一次知道了()词.
- b. *过了几天, 徽因的一些朋友不知怎么也知道了()事.
- c. ?随后的调查表明, 全国94%的消费者知道了()情况.

우선 ‘知道’의 목적어가 명사성 성분일 경우,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 되어야 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자면, 필자가 코퍼스를 조사한 결과, ‘了’이 출현하지 않은 문장에도, ‘知道’의 명사성 목적어는 모두 한정적인 성분이었다. 이는 ‘知道’가 나타내는 어휘의미와 상관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知道’는 “사실 혹은 이치에 대해 인식하거나 깨닫다.”²⁾를 나타내는 인지 동사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6) 我知道他的名字.
-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

CCL 코퍼스

예문(6)에서 ‘知道’는 인지주체인 ‘我’가 대상이 되는 ‘他的名字’에 대해 알고 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즉 ‘知道’가 나타내는 의미기능은 “인제주체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吕叔湘 외(1978/2005) 《现代汉语词典》 참고.

이와 같이 ‘知道’로 인해 인지주체가 대상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은 한정적인 명사성분이어야 하며, 만약 예문 (6)의 목적어를 비한정 (indefinite) 성분인 ‘名字’로 바꾸게 되면 자연스럽게 읽힌 문장이 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我知道名字。

그러므로 ‘知道’의 목적어가 명사성분일 경우,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어야 된다는 것은 ‘知道’ 구문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知道+了+목적어’ 구문이 성립이 되려면, ‘知道’ 앞에 반드시 부속성분들이 출현해야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목적어가 또 하나의 문장인 경우이다. 해당 유형에서 목적어의 종류는 형용사 술어문, ‘是/叫’ 구문, ‘是~的’구문, ‘有’ 구문, 의문사 의문문, 일반 동사술어문 등이 있다. 또한, ‘知道’ 앞에는 상황에 따라 부사어가 출현하는 경우와 출현하지 않는 경우가 전부 존재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a. 他知道了小城隍庙里的军火最多。→ 小城隍庙里的军火最多。
그는 小城隍庙에 있는 무기와 탄약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b. 我知道了这个女孩名叫赵雅芝。→ 这个女孩名叫赵雅芝。
나는 이 여자아이의 赵雅芝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c. 我知道了他是鄂温克族。→ 他是鄂温克族。
나는 그 사람이 예벤키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d. 我们知道了那兵舍的背面有一块很大的木板。
나는 그 병영 뒤에 아주 큰 목재 덩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e. 那一天起, 灵儿知道了什么是失眠。→ 什么是失眠?
그날부터 영아는 실면(실면증)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 f. 现在, 我们知道了迷惑来自人性的弱点。→ 迷惑来自人性的弱点。
현재, 우리는 미혹은 인성의 약점에서 오는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예문 (8)의 각 문장과 달리, ‘知道’의 목적어로 출현하는 문장이 독립적인 단문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小城隍庙里的军火多的事实”와 같이,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어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知道’의 목적어로 출현하면 문장전체가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9) a. 小城隍庙里的军火多的事实
 b. *小城隍庙里的军火()多。
 *他知道了小城隍庙里的军火()多。

이상으로 ‘知道+了+목적어’ 구문의 통사적 특징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우선 ‘知道’의 목적어가 한정적인 명사성 성분일 경우에는, 문장에 부사어 성분이 모두 출현하였다. 그리고 ‘知道’의 목적어가 또 하나의 문장일 경우에는, 목적어로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단문으로서 독립적으로 성립이 되는 문장이다.

3. ‘知道’의 상황유형(situation type)

앞서 서론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지동사 ‘知道’는 상태동사에 속한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중국어 동사의 상황유형에 대해 분류한 바가 있지만, ‘知道’와 같은 특별한 상태동사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Xiao & McEnery(2004)와 杨素英(1998a) 등은 ‘知道’를 단계성 상태동사로 분류하였고, Smith(1997)는 ‘知道’를 개체성 상태동사로 분류하였다.³⁾

3) Xiao & McEnery(2004)은 Smith(1991), Yang(1995) 등 기존학자들의 분류에 의거하여 동사를 활동동사, 순간동사, 완수동사, 성취동사, 개체성 상태동사, 단계성 상태동사로 분류하였다. 개체성 상태동사와 단계성 상태동사는 Xiao & McEnery(2004)가 상태동사의 하위유형을 분류한 것이다. 개체성 상태동사의 특징은 개체의 영구적인 기질을 서술하는 것으로, 끝점을 가지지 않으며, 결과를 부호화하지 않는 점이고, 단계성 상태동사의 특징은 개체의 일시적이고, 덜 영구적인 단계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Xiao & McEnery

정지수(2010)에 따르면, 개체성 상태동사는 영속적인 상태와 관련 있는데, 예를 들면 '是'와 같은 경우, '是'가 가리키는 상황은 그 자체로 어떠한 시간적인 변화와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상표지와 결합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녀는 상표지를 부가할 수 없는 개체층위 동사는 한 개체의 영구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정화 요소를 취하여 사건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즉 개체성 상태동사는 끝점을 제공해주는 성분(목적어 등)과 결합하여도 상표지와 결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했을 때, '知道'는 '了'와 공기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단계성 상태동사에 속한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단계성 상태동사 '病'과 비교했을 때, 통사적으로 현저한 차이점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0) a. 病了三天
b. *知道了三天

예문 (10)를 비교해 보면, 단계성 상태유형에 속하는 '病'은 덜 영구적인 상태와 관련 있기 때문에 '三天'이라는 수량제한으로 끝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了'와 결합하여 '아프다'라는 사실이 3일 동안 지속되었고, 현재에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知道'는 '病'과 같이 시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순히 단계성 상태동사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상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知道'는 개체성 상태동사의 영구성 자질과 단계성 상태동사의 역동성(\pm dynamic)자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2004)의 상태동사 분류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1>Xiao & McEnery(2004)의 상태 동사 분류

분류	예시	역동	지속	경계	종결	결과
개체성 상태	是, 属于, 等于	-	+	-	-	-
단계성 상태	病, 忙	\pm	+	-	-	-

특별한 부류로 본다.⁴⁾ 여기에서 단계성 상태동사의 역동성은 상태변화를 의미하며, 상태변화는 기시(inchoative)로 이해되기도 하며, 혹은 성취(achievement)로 이해되기도 한다(정지수 2010: 29). 또한, 코퍼스 자료를 조사한 결과로, '知道'가 개체성 상태동사로 쓰이는 예문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개체성 상태동사의 자질을 단계성 상태동사의 자질보다 더욱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즉 '知道'는 '알다'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많은 이들이 '알다'라는 동사는 예전에는 알고 있다가 지금은 잊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알다가도 다시 모를 수도 있으니 영구적인 상태로 간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知道(알다)'는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알 것이라는 결과에 대해 부호화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我知道'라는 말은 '나는 알고 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 초점이 주어지지, 어떠한 상황 또는 이유로 나중에 다시 잊을 수도 있다는 정보까지 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知道'가 포함하고 있는 정보가 나중에 잊을 수도 있다는 점, 즉 '知道'의 지속 상태에 끝점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 '알고 있다가 나중에 잊어서 모를 수도 있다'는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是'는 전형적인 개체성 상태동사이며,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 a. 我是一个大学生。

나는 대학생이다.

b. 2004年的时候我还是一个大一的学生, 现在已经工作很多年了。

2004에 나는 아직 대학교 1학년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일한지 벌써 몇 년 됐다.

예문 (11a)는 현재 나는 대학생인 점만을 알 수 있고, 언제부터 대학생이었는지 언제 졸업하여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 즉, '是'의 개체

4) 개체성 상태동사와 단계성 상태동사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다. 개체 고유의 속성에 해당하는 상태, 불변의 상태일수록 개체성에 가깝고, 가변적 상태, 일시적일수록 단계성에 가깝다. 정지수(2010) 참조.

성은 시작점과 끝점을 부호화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졸업하여 ‘나는 대학생이다’는 상태에 종점이 생기기 마련이다. 예문 (11b)를 보면 이런 의미가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2004년’에는 아직 대학생이었다가 현재는 더 이상 대학생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즉 ‘是大一的学生’이라는 상태가 종결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是’는 여전히 영구상태를 나타내는 개체성 상태동사로 간주되고 있다.

‘知道’ 또한 ‘是’의 경우와 같다는 것이다. ‘知道’가 나타내는 상태는 끝점을 부호화 하지 않지만 다른 문법수단으로 알다가 잊어버려서 다시 모르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是’와 다른 점은 ‘知道’는 개체성 상태동사의 자질뿐만 아니라 단계성 상태동사의 역동성(±dynamic) 자질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4. ‘知道’의 상적 전환(aspectual shift)

조경환(2015: 45-46)에 따르면, ‘상적 전환’은 상의 합성적인 속성 (compositional nature)에 기인한 것인데, 즉 한 문장의 상은 동사로부터 출발하여 차례대로 (기타) 논항들과 합성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玛丽喝了那些啤酒。”는 완수(accomplishment) 상황에 속하며, “玛丽喝了啤酒。”는 활동(activity) 상황에 속한다(조경환 2015: 45). 다시 말하자면 동사는 자신과 결합하는 논항에 따라 그 의미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동사의 의미 분석에서 해당 동사와 관련된 논항들은 동사의 의미 해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논항들은 동사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박종호: 2012).

동사와 관련된 논항들은 목적어, 보어 등성분이 있는데, Xiao & McEnergy(2004)는 동사의 의미자질과 각종 논항들은 상 합성을 통해 동사의

상적인 자질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였다. 즉 상황 상(situation aspect)은 동사의 자질, 부사어, 보어 등이 상호 작용한 합성결과(composite result)라는 것이다(Xiao & McEnery 2004: 326).

정지수(2010)도 상 합성에 의해 상황상이 바뀌는 경우를 설명하였는데, 예를 들면, 활동(activity)유형은 직접목적어나 술어구의 부사어, 보충어, 맥락에 의해 완수(accomplishment)유형으로 전화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Pustejovsky(1991)에서 제시한 영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2) a. Mary walked.
- b. Mary walked to the store.

위에 예문을 보면, 활동(Activity)유형에 속하는 (12a)에 전치사구 'to the store'가 추가되면 완수(accomplishment)유형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술어동사를 지닌 문장이 전치사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서 다른 상황유형으로 전환되기도 하며, 부사구의 시간적 의미적 자질이 각 층위에서 더해져서 합성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지수: 2010).

중국어도 상 합성에 의해 상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존재하는데, 杨素英(1998, 2000)은 여러 가지 중국어 상 합성 규칙을 제시하였다.

- (13) a. 활동동사 +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 = 결과가 실현된 구
 예: 跑 + 累 = 跑累
- b. 상태동사 + 결과를 나타내는 성분 = 결과가 실현된 구
 예: 恨 + 透 = 恨透
- c. [-时限]동사+동사중첩 = [+时限]동사
 예: 走[-时限] 走了走[+时限]
- d. 基本句[-结果实现] + 제한적인 성분 = 超基本句[+结果实现]
 예: 他推车。 [-时限][+动态]

他推车推了一个小时(시간보어) [+时限][+动态]

(杨素英 2000: 97-101)

예문(1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일반동사와 개체성 상태동사는 다른 성분의 도움으로 끝점을 지니는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체성 상태동사로 간주되는 성질형용사는 상표지를 부착한 상태에서 끝점을 함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정지수 2017: 51-52).

(14)⁵⁾a. 一位青年红着脸回答。

한 청년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b. 其中男性支持率比1990年高了2.1个百分点。

그 가운데 남성의 지지율이 1990년에 비해 2.1퍼센트 포인트 높아졌다.

c. 母亲年轻过, 也美丽过。

어머니도 젊었었고, 또한 아름다웠었다

(정지수 2017: 52)

예문 (14)와 같은 경우에 비추어, 정지수(2017)는 개체성 상태동사 ‘有’와 지속상 표지 ‘着’가 공기하여 새로운 구문이 만들어진 현상에 대해 증명하였다. 이는 개체성 상태동사도 다른 성분과의 상 합성을 통해 상적인 전환을 한 다음, 충분히 상표지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도 개체성 상태동사의 자질을 아직 지니고 있는 상태동사 ‘知道’가 다른 성분과의 상 합성을 통해 완료상표지 ‘了’와 공기하여 ‘知道+了+목적어’ 구문이 만들어졌음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이미 제시한 바와 같이, ‘知道+了+O’ 구문에는 다양한 부사어 성분이 출현하거나, 직접 목적어가 한정적인 성분, 또는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 성분들을 삭제하게 되면 비문이 된다. 이는 ‘知道+了+O’

5) 정지수는 (2017)는 예문 (14)의 ‘개체성 상태동사+상 표지’결합은 [+동태] 자질을 지니는 동사들과 달리 상 표지가 동사 본유의 상적 특징을 전환(shift)시키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구문에 출현하는 각 성분들이 이 구문을 정문으로 완성시키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Xiao & McEney(2004)와 정지수(2010, 2017) 등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필자는 ‘知道+了+O’구문에 출현하는 부사어와 같은 부사어 및 ‘知道’의 한정적인 목적어는 ‘知道’가 나타내는 상황유형을 개체성 상태의 자질과 단계성 상태동사의 역동성[±dynamic] 자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유형에서 성취(achievement)유형에 가까운 상황으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부사어 혹은 목적어가 나타내는 시간적 의미적 자질이 ‘知道’와 결합하게 되면서 문장 측면에서의 새로운 합성적 의미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또한 새로 합성된 의미가 성취(Achievement) 유형에 가깝다면 충분히 ‘了’과 결합할 수 있다고 본다.⁶⁾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⁷⁾a. 也是从他的口中, 我第一次知道了电影学院这个词。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는 电影学院 이 어휘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b. 过了几天, 徽因的一些朋友不知怎么也知道了这件事。

며칠 지난 후, 徽因의 친구들도 어찌된 것인지 이 일을 알게 되었다.

c. 随后的调查表明, 全国94%的消费者知道了有关情况。

이어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 94% 소비자들이 관련 사항을 알게 되었다.

CCL 코퍼스

예문 (15)를 살펴보면, (15a)는 부사어 ‘从他的口中’은 ‘知道’와 결합하여 어떠한 경로를 기점으로 ‘모르다’에서 ‘알게 되었다’는 순간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상황유형으로 합성되었고, (15b)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过了几天’이 ‘知道’와 결합하여 그 시점을 기준으로 ‘모르다’에서 ‘알게 되었다’는 순간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상황유형으로 합성되었고, (15c)의 부사어 ‘随后的调查结果表明’이 ‘知道’와 결합하여, 조사에 의해 결과를 얻게 된 기점으로 ‘모르다’에서 ‘알게 되었다’는 순간적인 변화를 겪을 수 있는 상황유형으로 합성되었다.

6) 예컨대, 성취 동사에 속하는 ‘死’는 “他死了三年。”과 같이, ‘了’과 결합할 수 있다.

7) 본 예문은 편의상 예문(3)를 다시 옮긴 것이다.

이상 세 가지 상황에서 ‘了’을 부가하게 되면 ‘모르다’에서 ‘알게 되었다’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知道’가 지니고 있는 영구상태 자질에 의해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난 다음 다시 그 상태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

위에 예문(8)과 같이 목적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호성에 작용을 한다. 단지 예문 (8a-c)와 같은 경우는 ‘知道’와 상호성이 이루어지는 성분이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에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6) a. 小城隍庙里的军火最多。

작은 성황묘에 있는 무기와 탄약은 가장 많다.

b. 这个女孩名叫赵雅芝。

이 소녀의 이름은 赵雅芝이다.

c. 他是鄂温克族。

그 사람은 예벤키족이다.(다른 부족이 아니라)

d. 那兵舍的背面有一块很大的木板。

그 병영 뒤에 아주 큰 널빤지가 있다.

e. 什么是失眠?

불면증이란 무엇일까?

f. 迷惑来自人性的弱点。

미혹은 인성의 약점에서 오는 것이다.

예문 (16)번의 각 문장은 예문 (8)의 동사 ‘知道’의 목적어이며, 모두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완전한 문장’이란 실상에 존재하는 정문(正文)을 가리킨다. 한 문장이 성립되려면 명제와 명제에 대한 발화자의 심적 태도, 즉 양태(modality)가 필요하다. 예문 (16)의 각 문장의 두드러진 양태표지는 정도 부사, 판단, 강조를 나타내는 ‘是’구문, 존재를 나타내는 ‘有’구문, 의문 어기를 나타내는 의문사 ‘什么’, 한정성 목적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양태의미가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위 문장들이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고⁸⁾,

8) 중국어에는 형태변화가 없어 명제와 양태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知道’의 목적어가 되었을 때, 상합성에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양태는 상합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이며, 부사어, 보어, 상표지 등 또한 넓은 의미에서 하나의 양태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합성에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知道’가 나타내는 합성된 상황상이 ‘순간적인 변화를 이룬 다음, 변화된 상태가 지속 된다’는 점에서는 성취 동사와 같지만, 다른 문법성분과의 결합에 있어서는 성취 동사와 차이점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성취 동사 ‘死’와 같은 경우, 시량보어와 결합하여 ‘죽은 다음 지속되는 시간구간’을 나타낼 수 있는데, ‘知道’는 시량보어와 결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7) a. 他已经死了三年。

그가 죽은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b. *他已经知道了三年。

우선 성취 동사 ‘死’와 시량보어 ‘三年’이 결합하였을 때, “3년 동안 죽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3년이 되었다”는 결과 상태의 지속구간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Xiao & McEnery(2004)의 술어 동사 상적 자질 분류에 따르면, 성취 동사는 [-지속], [+동태], [+경계], [+종결], [+결과]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취 동사가 시량보어와 결합하여도 지속되는 시간구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知道’도 상 합성을 통해 성취 동사와 같이 순간적인 변화를 이룬 다음, 변화된 상태가 지속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왜 시량보어와 함께 출현하여 “알게 된 지 3년이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

a. *我吃。

내가 먹다.

b. 我吃。

내가 먹을 게/내가 먹을래.

만약 “我吃”가 예문 (a)와 같이 “내가 먹다”라는 명제만을 나타낸다면, 이는 문장으로서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b)와 같이 ‘~을/를 게’ 혹은 ‘~을래’와 같이 의지를 나타내는 양태의미가 더해진다면 정문이 된다.

없을 까? 그 이유는 개체성 상태동사는 다른 성분과의 상 합성을 통해 순간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상적인 전환을 하지만, 여전히 일반동사와 같이 지속된 후 구간에 끝점을 찍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知道’가 나타내는 상적 자질은 [+지속], [-동태], [-경계], [-종결], [-결과]이며, 상 합성을 통해 순간적인 변화를 이룬 다음, 다시 변화된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이 지속에는 끝점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상 표지와 부사어는 상 합성 과정에서 개체성 상태동사의 순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5. 완료상 ‘了’의 기능분화

Li & Thompson(1981/2001: 193)은 ‘了_i’은 완료상 표지⁹⁾로서 사건이 전체로서 파악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한된 사건에만 출현한다고 하였다. 또한, 박민아(2015)는 동사구의 ‘종결점(final endpoints)’ 유무가 ‘了_i’이 출현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하였는데, 이때 종결점(final endpoints)’을 지니고 있는 성분은 동사 자체이거나 혹은 목적어이거나, 둘 중에 한 성분만 지니고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8) a. 那天他吃了足有四五十个饺子。 (활동 동사+了_i)
 그날 그는 만두를 무려 사오십 개 씩이나 먹었다.
 b. 古埃及产生了宫廷学校。 (완수 동사+了_i)
 고 이집트에는 궁정 학교가 생겼다.
 c. 在无责任能力的状态下杀死了人。 (성취 동사+了_i)
 아무런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죽였다.

9) 본고에서는 ‘了_i’이 왜 실현상이 아닌 완료상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겠으며, Li & Thompson(1981/2001), 최규발·박민아(2012), 정지수(2010) 등의 주장에 따라 완료상(perfective aspect)으로 간주하겠다.

- d. 他一连敲了好几下门。 (순간 동사+了_i)
 그는 연달아 여러 번 노크했다.
- e. 我又疯狂地再爱了一次。 (단계성 상태 동사+了_i)
 나는 또 한 번 미친 듯 사랑했다.

CCL 코퍼스

예문 (18)의 각 문장과 같이, ‘了_i’의 출현 조건이 갖추어진 문장에서 ‘了_i’은 하나의 완전한 사건을 나타내며, ‘사건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了_i’이 지니고 있는 완료상 자질이다.

앞 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知道’는 부사어 또는 한정적인 목적어와 상합성을 통해서 ‘모르다’에서 ‘알게 되었다’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상황유형으로 바뀌면서 ‘了_i’와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즉 ‘知道’가 다른 성분과 상 합성을 통하여 ‘了_i’ 결합한 다음 다시 영구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여전히 [-경계]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了_i’은 ‘제한된 사건을 나타낸다.’는 의미와 여전히 모순적이다. 이는 성취 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활동 동사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성분과 상 합성을 한 다음, ‘了_i’와 결합하면 경계 지어진 사건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9) a. *他吃了饭。
 b. 他刚刚才吃了饭。
 그는 방금 전에 겨우 밥을 먹었다.

예문 (19a)는 활동동사 ‘吃’가 출현한 문장이고, 목적어가 비 한정 성분이므로 ‘了_i’와 결합하면 비문이 된다. 그러나 ‘吃’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刚刚’과 결합하게 되면서 성취 유형에 가까운 성분으로 상 합성하게 되었고, ‘了_i’와 결합하여 하나의 제한된 사건을 나타낸다.¹⁰⁾ 이때 ‘吃饭’이라는 사건은 완료되

10) 부사어 ‘刚刚才’와 활동 동사 ‘吃’가 결합하게 되면서, 동사 ‘吃’는 본래의 활동 동사 유형에서 성취 동사에 가까운 상적 자질을 얻게 되었지만 전형적인 성취 동사 ‘死’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활동 동사는 [+지속] 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량보어와 결합하였을 때,

었으며, 완료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了_i’는 완료상 표지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필자는 ‘知道’와 같이 원래는 상태 동사이지만 부속성분 및 목적어와의 상 합성을 통해 성취 유형에 가까운 상황 유형으로 전환 된 경우 및 원래부터 성취유형에 속하는 동사와 결합하는 ‘了_i’는 전형적인 완료상표지가 아니라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知道’, ‘死’와 같은 동사와 결합하는 ‘了_i’의 완료상 기능은 더욱 허화 된 준 상표지라고 할 수 있으며, 허화 과정에서 ‘了_i’은 다른 기능이 분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성하(1998)는 문법화의 의미변화는 결국 범언어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소수의 의미 군에 제한된다고 보았고, 그 예로 ‘finish’의 의미를 가진 동사나 방향동사들은 먼저 완결상(completive)로 변한 다음, 전시성 표지(anterior), 완료상(perfective)을 거쳐 단순과거(simple past)표지로 발전한다고 한다.¹¹⁾ 그러므로 ‘了_i’의 경우도 비록 아직 완전한 과거시제는 아니지만, 완료상 기능이 약화되고, 어떤 시점에서는 이미 발생하였다는 전시성을 나타내는 기능이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는 앞서 제시한 예문 (15)번에서 ‘了_i’을 삭제하면 문장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점에서 증명할 수 있다.

- (20) a. ?也是从他的口中, 我第一次知道电影学院这个词。
 b. ?过了几天, 徽因的一些朋友不知怎么也知道这件事。
 c. ?随后的调查表明, 全国94%的消费者知道有关情况。

CCL 코퍼스

이외에도 중국어의 기시상표지인 ‘起来’가 이동 동사에서 복합방향보어(directional complement), 동상보어(phase verb compliment), 기시상표지(inceptive aspect marker), 양태표지(modality marker) 기능까지 나타내는 것¹²⁾에 비추어, ‘了_i’의 완료상 기능이 또 다른 문법적 파생을 통해서 일종의

동작의 지속 구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三个小时’는 ‘3시간 동안 먹었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반면 성취 동사 ‘死’는 ‘3년 동안 죽었다’라는 표현이 불가능하다.

11) 최규발(2011)에서 재인용.

모종의 양태의미도 함께 나타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태의 범주에서 ‘了’은 어떠한 기능을 나타낼까? 우선 양태의 개념과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양태란 ‘화자가 명제 내용에 대한 심적인 태도’라고 하는데¹³⁾, 여기에서 ‘심적인 태도’는 통보양태, 인식양태, 감정양태, 의무양태가 있다. 통보양태는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는 맥락에서 명제 내용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청자에게 반영하는 것이고, 인식양태란 화자가 어떤 명제에 대하여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인식의 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보여주려는 의식이다(이선웅 2001: 322-324). 감정양태는 화자 자신의 정감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의무양태(deontic modality)는 화자가 주어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주어의 의도, 희망, 의무, 당위,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다(이선웅 2001: 322-324).

정지수(2010: 98)는 기존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완료상 표지 ‘了’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서술할 때 쓰인다고 하였는데, 필자는 ‘了’의 서술기능이 화행 측면에서 바로 통보양태에 속한다고 본다. 다음 두 예문의 비교를 통해 ‘了’의 양태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자.

- (21) a. 我吃午饭了。
나 점심 먹었어.
b. 我吃了午饭了。
나 점심 먹었던 말이야.

예문 (21)의 두 문장의 차이점은 ‘了’의 출현여부에 있다. ‘了’이 출현한 문장은 출현하지 않는 문장(21a)보다 화자가 자신의 관점을 더욱 강조해서 청자에게 반영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물론 ‘了’이 없는 (21a)도 문말의 ‘了’의 기능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심리 또는 상태를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了’

12) 신경미(2012) 참조.

13) 이선웅(2001: 322)에서 인용.

이 출현한 (21b)가 (21a)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분명하다.

이상으로 분석한 결과, ‘知道+了+O’ 구문에서 ‘了’가 나타내는 완료상 자질은 기타 일반 동사(예컨대, 활동, 완수 등)와 결합했을 때 나타내는 전형적인 완료상 자질보다 많이 허화 되었고, 허화 되는 과정에서 전시성과 양태기능이 분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6. ‘知道’의 의미기능 확장

‘知道’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자질에 의해 통사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적 전환 등의 문법적 수단을 통해 완료상 ‘了’와 공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장에 출현한 기타 부가 성분들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했고, ‘了’와 같은 경우, ‘知道’와 결합하면서 상적인 자질이 약화되면서 전시성 및 양태기능이 분화되었다. 그렇다면 ‘知道’의 의미기능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본절에서는 일반화(generalization)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일반화란 어휘소의 의미가 점점 특수성을 잃어 일반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의미 변화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이성하 1998: 258). 일반화는 의미의 일반화와 문법적 기능의 일반화 두 가지가 있는데(최규발·정지수: 2009), Hopper & Trauott(1993)은 의미의 일반화는 다의성의 증가이고, 문법적 기능의 일반화는 어떤 문법형태가 더 큰 통사적 역할을 하게 되어 사용에 있어 제약을 덜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知道’가 원래는 결합할 수 없는 완료상 표지 ‘了’와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 발전과정에서 의미의 일반화와 문법적 일반화를 모두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知道’는 인지동사이며 개체성 상태동사의 특징과 단계성 상태동사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는 특별한 동사이다. 또한 문장 측면에

서 다른 성분과의 상 합성을 통해, 성취유형에 가까운 상적 자질로 전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知道’가 어떻게 확장된 의미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현대중국어에서 ‘知道’가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자. 《现代汉语大词典》에서 ‘知道’는 “사실 혹은 이치에 대해 인식하거나 깨닫다.”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외에도 ‘知道’는 ‘会’, ‘明白’, ‘晓得’, ‘理解’, ‘了解’ 등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2) a. 我会唱这首歌。→我知道这首歌怎么唱。
나는 이 노래를 부를 줄 안다.
b. 我明白你说的是什么意思。→我知道你说的是什么意思。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안다.
c. 我晓得的。→我知道的。
나 알고 있어/잘 알아.
d. 我理解你的心情为什么这么糟糕。→我知道你的心情为什么这么糟糕。
나는 네 기분이 왜 이렇게 나쁜지 이해해/알고 있어.
e. 我了解事情的来龙去脉。→我知道事情的来龙去脉。
나는 사건의 맥락을 잘 알아.

위 예문을 살펴보면, 비록 통사구조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会’, ‘明白’, ‘晓得’, ‘理解’, ‘了解’ 등을 ‘知道’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이와 같이 ‘知道’는 의미적으로 다의성을 갖추고 있었다. 또한 통사적으로 보았을 때 ‘知道’는 완료상 표지‘了’와의 결합뿐만 아니라 비 자주동사로서 나타낼 수 없는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知道’는 비 자주동사이기 때문에 동량 보어 ‘一下’를 동반할 수 없는데, 코퍼스에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3) a. 他说你硬逼他告诉你, 所以我最好也知道一下。
b. 我想林小姐应该知道一下事情的进展。

또한 “知道知道”형식도 사역구조 ‘叫/让~知道知道’외에 쓰이지 않아야 정상인데 CCL 코퍼스에서 사역구조에 들어가지 않은 예문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4) 尽管有诸多不足取处, 但是知道知道人们有些什么说法, 考虑考虑为什么会有这样的说法, 也还不无意义。

CCL 코퍼스

이와 같이 ‘知道’는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모두 일반화(generalization)과정을 겪은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시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知道’는 현·당대에 들어서 사용된 예문 수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사용수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일반화를 겪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知道’의 발전과정을 기존연구와 코퍼스의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孙小晶(2007: 29-30)에 따르면, ‘知道’는 술빈 구조에서 어휘화과정을 거쳐 동사로 합성되었다. 그녀는 “先秦시기에서 ‘知’는 동사로 쓰였고 ‘知道, 懂得, 了解’의 의미를 나타낸다. ‘道’는先秦 시기에서 ‘路, 道路’의미로 쓰이다가 다시 ‘事理, 规律’, ‘우주 만물의 本源, 本体’의 의미로 파생되었으며, 唐代에 이르러 ‘道’의 실사적 의미가 조사 ‘得’의 의미로 허화 되면서 심리동사 ‘知道’로 어휘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사 ‘知道’는 唐代에서부터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필자가 동사 ‘知道’의 시대별 사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북경대 고한어 코퍼스에서 각 시대별로 ‘知道’를 검색명령어로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6-1> 각 시대별 ‘知道’의 사용량

	唐代 14)	五代	宋代 15)	元代	明代	清代	民国 时期	现/当代
동사 ‘知道’	20	21	148	114	1421	8909	7025	150924

14) 唐代的 ‘知道’용례는 CCL코퍼스에서 시대를 唐代로 설정하여 검색한 개수와 清代的 《全

표 <6-1>를 살펴보면, 동사 ‘知道’는 宋代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清代에 한 차례 상승세를 보인 다음, 現·当代에 이르러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知道’가 완료상 표지 ‘了’와 결합하는 용법과 “知道知道”용법은 清代에서부터 등장하였고, “知道一下”는 現·当代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이는 모두 ‘知道’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확장된 기능으로 볼 수 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6-2>

	元代	明代	清代	民国时期	现/当代
‘知道’와 ‘了’이 결합한 단문	0	0	30	11	2642
知道知道	0	0	20	9	80
知道一下	0	0	0	0	42

이상으로, 우리는 ‘知道’가 언어발전 속에서 사용량의 급증으로 인해 의미적 문법적 일반화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게 되었다.

7. 결론

본고에서는 ‘知道+了+목적어’ 구문이 성립이 되는 통사적인 조건과 더불어, 이 구문이 성립되었을 때, 문장의 각 성분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知道+了+목적어’ 구문이 성립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첫째, ‘知道’의 목적어가 명사성 성분일 경우,

《唐诗》에서 검색한 개수를 합친 결과이다.

- 15) 宋代의 ‘知道’용례는 CCL코퍼스에서 시대를 宋代로 설정하여 검색한 개수와 清代의 《全宋词》에서 검색한 개수를 합친 결과이다.

목적어는 반드시 한정적인 성분이 되어야 하며, 문장에 반드시 부사와 같은 부속성분이 출현해야 된다. 둘째, ‘知道’의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일 경우, 목적어로 출현한 문장은 반드시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정문이어야 된다. 또한, ‘知道+了+목적어’ 구문에 출현하는 부속성분과 ‘了’, 그리고 인지 동사 ‘知道’가 나타내는 의미기능도 이 구문이 성립이 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우선 문장에 출현하는 부속 성분과 한정성 목적어(또는 목적어가 하나의 문장인 경우)와 상호작용을 하여, 문장 층위에서의 합성적인 상황유형 즉 성취 동사에 가까운 상황유형으로 변화하게 한다. 그러나 ‘知道’가 순간적인 변화를 거친 후, 다시 영구적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구문에 출현하는 ‘了’는 전형적인 완료상일 수가 없으며, 이때의 ‘了’는 완료상 자질이 많이 약화 된 준 상화표지이며, 상 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시제 의미 혹은 양태의미가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현대중국어의 인지 동사 ‘知道’는 의미 확장으로 예전보다 더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고, ‘知道’구문에는 더욱 다양한 성분들이 출현하게 되었으므로 ‘知道’의 품사자질에도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 모든 조건이 어울려졌을 때 ‘知道+了+목적어’가 비로소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 參考文獻 >

1. 논저

- 박민아(2015), <현대 중국어 ‘了1’과 ‘了2’의 시간의미와 그 출현조건 연구>, 《제 4회 연강중국어학회 학술대회》, 덕성여대 주최.
- 박종호(2012), <인식 동사 ‘알다’의 속성 분석>, 《언어사실과 관점》 제30권, 81-106.
- 신경미(2012), <‘起來’와 ‘起去’의 비대칭 현상에 관한 고찰>, 《中國學論叢》 제37권, 25-43.
- 이선웅(2001), <국어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冠嶽語文研究》 제26집, 317-339.
- 이성하(1998),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정지수(2010), <현대중국어 사건의 고정화와 상(aspect)>, 《中國學論叢》 28, 1-23.
- _____(2010), 《현대중국어의 상(aspect)과 부정(nagation)》,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7), <개체성 상태동사와 지속상 표지 '着'의 결합현상 연구>, 《中國語文論叢》 제82집, 43-70.
- 조경환(2015), 《중국어의 상: 안과 밖》, 서울: 역락.
- 최규발(2011), <현대중국어 상 표지로의 문법화 조건>, 《中國學論叢》 제31집, 67-86.
- 최규발·박민아(2012), <현대 중국어 완료상 표지 '了'와 '완수'유형의 분류문제>, 《中國語文論叢》 53, 106-126.
- 呂叔湘(1980/1999), 《現代漢語八百詞》, 北京: 商務印書館.
- 孫小品(2007), 《從概念整合角度分析漢語雙音節動詞的詞匯化過程》, 北京語言大學博士學位論文.
- 楊素英(1998a), <從情狀類型來看把字句(上)>, 《漢語學習》 第2期, 10-13.
- _____(2000), <當代動貌理論與漢語>, 《語法研究和探索》 9.
- Hopper &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 C. N. & Thompson S. A. (1981/200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Berkeley: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정구의 옮김(2001), 《표준중국어문법》, 서울: 한울아카데미.
- Xiao, Richard & McEnery, Tony(2004a). *A corpus-based two-level model of situation aspect*, *Journal of Linguistics* 40, 325-363.

2. 사전류

呂叔湘 외(1978/2005), 《現代漢語詞典》, 北京: 商務印書館.

3. 예문 출처

CCL북경대학교 코퍼스 (<http://ccl.pku.edu.cn>)

< Abstract >

A Study on the Co-occurrence of Cognitive verb ‘zhidao(知道)’ and Perfective Aspect Marker ‘le’ — Focus on ‘zhidao+le+object’

Heo, Seolyoung · Choi, kyubal

This study analyzed the conditions required to create a valid ‘zhidao(知道)+le(了)+O’ structure and the function of each component of the sentences created with the ‘zhidao(知道)+le(了)+O’ structure. For the ‘zhidao(知道)+le(了)+O’ structure to be valid, the following conditions should be met: first, there must be an auxiliary component when the object of ‘zhidao(知道)’ is a definite noun. Second, when the purpose of ‘zhidao(知道)’ is a full sentence, that sentence must be a correct sentence. Also, the ‘zhidao(知道)+le(了)+O’ structure is valid because ‘zhidao(知道)’ undergoes aspect combination with a preceding auxiliary component or object (if there is only one object in the sentence) to convert from an individual level state (ILS) verb to a situation type similar to an achievement verb. As ‘zhidao(知道)’ returns to a permanent state after an instant change, however, the perfective aspect function of ‘le(了)’ is considered different from the perfective aspect function it shows when combined with other ordinary verbs. The perfective aspect of ‘le(了)’ in the ‘zhidao(知道)+le(了)+O’ structure or after combination with an achievement verb such as ‘si(死)’ is a weakened aspect marker already much grammaticalized and may have developed the meaning of past tense or modality through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

Key words: cognitive verb, zhidao, perfective, le, situation aspect, aspectual shift, generalization

www.kci.go.k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7. 11. 10.	2017. 11. 28.	2017. 12. 02.	2017. 12. 13.	2017. 12. 31.

